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October 23, 2026 Vol. 1030



나성서남교회 성도들. ⓒ 나성서남교회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신승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지키는 신앙, 명성교회에서 배운 새벽기도와 영성 추수감사절 나눔 · 찾아가는 찬양으로 지역사회 섬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회자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성서남교회 최권능 목사는 목회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다. 담임목회자로서 첫 사역지를 섬기고 있는 최 목사는 이상적인 목회에 대해 거창한 계획이나 외형적인 성장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자신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목회를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담임목회 현장에 와보니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잘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흥 자체가 축복의 전부는 아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며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이자 목회 철학"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의 목회 철학에는 서로 다른 두 교회에서 경험한 신앙의 유산이 자리하고 있다. 부모님과 온 가족이 섬겼던 신승교회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졌고, 20세 때 명성교회로 옮긴 후 신앙생활을 이어왔다. 그에게 명성교회는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준 모교회다.

최 목사는 "명성교회에서 목사님의 목회와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배운 것이 많다. 특별히 새벽기도와 영성,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마음이 제게 깊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설교 방식에서도 김삼환 목사에게 배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 목사는 "설교를 듣는 시간까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느끼지 않도록 쉽게 전하려고 노력한다"며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제 삶에서 살아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신승교회를 통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태도를 배웠다. 최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그는 2004년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할 당시 동성애 문제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을 경험했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 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논하면서 성경의 기준보다 인간적인 판단과 관용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것도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성도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저도 교회에 와서 제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는 분들을 경험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자신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며 떠나기도 했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었다"며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말씀의 기준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IS 대원들. ⓒCreative Commons

"비트코인에서 테러까지" IS의 자금 유통 실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와 그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이슬람국가 호라산(ISKP)이 암호화폐와 불법 자금 네트워크를 동원해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한 테러 작전을 감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의 다니엘 세인트 존(Daniel St. John)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호라산 테러 경제: 기독교인을 향한 이슬람국가의 작전'에 따르면, IS는 교리적 거부감과 지정학적 적개심을 이유로 기독교 공동체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 자금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S의 자금 흐름 가운데 이슬람국가 소말리아(ISIS의 소말리아 지부인 ISS)에서 아프가니스탄의 ISKP로 이어지는 자금 이동 경로에 주목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 등을 인용한 이번 발표에 따르면, ISS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론 블록체인 등 암호화폐를 활용해 ISKP에 매월 최소 2만 5,000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2023년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제거된 빌랄 알수다니(Bilal al-Sudani) 등 핵심 자금책들이 구축한 국제 자금망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더욱 확장됐다.

강혜진 기자 ➔12면에서 계속

알립니다

다음주 신문(10/30)은 휴간입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정부보조 상담 환영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NEWSTAR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교회및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 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자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JOHN McKINNEY
LA CITY ATTORNEY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의를 지켜갑니다
LA시의 정의로운 검사, 신뢰받는 리더
존 맥키니
5살에 부모를 여의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존 맥키니는 28년 경력의 검찰청 강력부 베테랑 검사입니다.
그는 법정과 지역사회를 오가며 범죄 피해자와 약자를 지키는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핵심 공약
✓노숙자 대책 마련 ✓공공 안전 확보
✓납세자 보호 ✓시정 투명성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
후원정보
Paid for by John McKinney for City Attorney 2026 General |12501 Imperial Hwy., #200, Norwalk, CA 90650 | FPPC ID#1492529. Funding details at ethics.lacity.gov

제1회 동행과 상생 영상제 '함께여야 온전합니다'

발달장애 컨퍼런스 특별 기획 〈바람을 견디는 숲〉, 〈프렌치 파파, 인생을 다시 요리하다〉, 〈특별한 부르심〉 무료 상영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CPU)과 미주복음방송(GBC)가 공동으로 제1회 동행과 상생 영상제를 10월 24일(토) 웨스트코비나의 선한청지기교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10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열리는 발달장애 컨퍼런스의 특별 기획으로 마련됐다. 이번 영화제 및 컨퍼런스는 Indispensable(함께여야 온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영상제는 발달장애 사역의 현장과 복음의 메시지를 더 깊이 전하고자 기획됐다. 컨퍼런스 둘째 날인 24일에는 발달장애 가족과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초청작 세 편이 차례로 상영된다.

오전 9시 30분에는 첫 번째 초청작 〈바람을 견디는 숲(Where the Trees Stand Together)〉이 상영된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듯, 발달장애인과 가족, 이웃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공동체 BBT의 따뜻한 이야기를 그렸다.



오후 1시 30분에는 두 번째 초청작 〈프렌치 파파, 인생을 다시 요리하다(French Papa: Cooking Life Anew)〉를 상영한다. 발달장애 아들 재진이를 통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타미 리(Tommy Lee) 셰프의 삶과 신앙을 조명한다.

오후 5시 50분 〈특별한 기름부으심(Special Anointing)〉을 상영한다. 발달장애 성도가 교회의 항존직인 집사로 세워지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Indispensable)임을 발견해 가는 선한청지기교회의 실제 이야기로 올해의 주제를 담았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은 이번 컨퍼런스와 영상제가 지난 4년간 진행된 발달장애 컨퍼런스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명 총장은 영상을 통해 1세들의 신앙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잘 전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내년에는 초청작뿐 아니라 공모작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화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작품은 현장 상영으로만 공개될 예정이다.

행사와 영화제의 자세한 일정은 발달장애 컨퍼런스 홈페이지(www.k-churchconferenc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회 동행과 상생 영상제
컨퍼런스: 10월 23일(금)~24일(토) (금 · 토 저녁 집회 무료 개방)
영화제 상영: 10월 24일(토) 오전 9:30 / 오후 1:30 / 오후 5:50 (무료 관람, 일부 작품은 현장 상영만 진행)
장소: 선한청지기교회 (캘리포니아 웨스트코비나)

"부흥은 우리 능력 아닌 하나님의 은혜

추수감사절 나눔·주차장 개방
교회 안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 찾아가는 찬양사역, 찬양 버스킹
외형적 성장보다 복음의 본질에 집중



교회 앞에서 최권능 목사. ©기독일보

➔ 1면 기사 〈부흥보다 중요한 것〉에 이어서

그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 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여야 한다"며 "목회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질문은 자신과 성도들이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작 내가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게 된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자고 권면하면서 저 자신도 먼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했다.

나성서남교회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최 목사는 "선교를 비롯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려고 한다.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에도 복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 당회에서 여러 사역을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을 선정해 조금씩이라도 섬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도 이어가고 있다. 추수감사절에는 강단에 드려진 헌물을 소방서와 경찰서 등 지역사회 기관에 나누고, 교회를 찾는 대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교회 바로 인근의 칙필에이와 엘 카미노 컬리지를 방문하는 이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팬데믹 기간부터 인근 업소 관계자들에게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돌봄도 최 목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운전을 하지 못해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찬양대원들이 직접 찾아가 찬양을 부르는 사역을 시작했다.

최 목사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찬양대원들이 찾아가 찬양을 불러드리면 무척 좋아하신다. 교회가 그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앞으로는 교회 밖으로 사역의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연말부터는 20~30명 규모의 찬양팀이 지역에서 버스킹 형식으로 찬양하며 주민들과 만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교육부 사역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민교회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대형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최 목사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작은 교회가 가진 장점을 살려 다음 세대를 품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4주간의 교육을 통해 교회에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다. 또한 여름성경학교(VBS) 사역을 지역 교회들과 연합해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티후아나 지역 교회들과 연계해 현지 어린이들을 초청하고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계획도 세웠지만, 현지 총기 사건 등 안전 문제로 일정을 미뤘다.

최 목사는 담임목회자로 부임한 직후 팬데믹을 겪었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려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목회와 부흥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그는 "담임목사가 되고 나니 잘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됐다. 부임하자마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다. 어려움을 겪고 아파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에만 매달리는 것을 경계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복음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온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교회를 크게 만들거나 좋은 것을 누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흘려보내야 한다. 아버지께서도 담임목사는 교인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못한 차를 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목회자가 먼저 검소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교회가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머니 속의 송곳은 결국 드러난다는 '낭중지추'라는 말처럼, 진실한 것은 감추려 해도 드러나고 헛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믿는다"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eu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최호년 목사 “뜰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애나하임 주성교회 전도축제 최호년 목사,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통해 신앙의 의미 전해

주성교회(손태정 목사)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 ‘5배가 전도축제’에서 최호년 목사(주은혜교회)가 17일 오후 7시 ‘뜰에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에스더 5: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신앙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말씀이 들리면 소망과 사명이 생긴다”

그는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은혜다.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이 들리면 산다는 것”이라며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소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생긴다. 이제 내가 나가야겠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은혜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서 있는 것’의 의미를 개인적인 가정사와 목회 경험을 통해 풀어냈다. 그는 최근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가 재활 치료를 받던 중 고관절까지 다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연로한 어머니가 여전히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이에도 서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서 있다가 눕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했다.

“여러분, 서 있는 것이 은혜다. 에스더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였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간 것 자체가 은혜였다”고 말했다.

“신앙은 서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 함께 서 있는 것”

최 목사는 신앙을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신앙은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서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서 있어 주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늘 그 자리에 서 있다. 부모가 그렇게 서 있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편 119편 104절을 언급하며 “명철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으로 표현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언급하며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빌립보서 1장 29절도 목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말씀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에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솔직히 저도 기도할 때는 고난 없이 믿음만 달라고 기도한다. 자녀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주지 마시고 믿음만 달라고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



손태정 목사(좌)와 최호년 목사. ⓒ 기독일보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믿음을 원하지만 고난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은혜라고 말씀한다”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전했다.

에스더 5장 1~2절에 기록된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서 있는 은혜’를 강조했다.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으며, 왕은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럽게 여겨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었다.

최 목사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 것도 은혜이고, 왕이 금규를 내민 것도 은혜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했다.

이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동생이 암으로 다리를 절단한 뒤 항암치료를 받았고, 이후 병이 진행돼 더 이상 절단할 부위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온 가족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신앙은 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설 다리조차 없을 때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던 두 곳의 뜰을 언급하며 설교의 의미를 십자가로 연결했다. 최 목사는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그 뜰에 서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서 계셨기 때문이다. 신앙은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음을 인정했다. 최 목사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데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했다.

이어 “말씀의 뜰에 서 있어야 한다. 기도의 뜰에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뜰에 서 있어야 한다”며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앙이 서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한 조서가 반포되고 왕의 명령을 전하는 역졸들이 왕의 준마를 타고 달려가는 모습이 등장한다(에스더 8:9~14).

그는 “에스더의 이야기는 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달리는 것으로 이어진다”며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반포되고 역졸들이 왕궁에서 기른 좋은 말들을 타고 급히 달려간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다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앙은 뜰 밖으로 뛰어가는 것이다. 말씀의 뜰과 기도의 뜰, 십자가의 뜰에 서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며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소식을 들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정경애 단장이 하늘소리 에어로폰 앙상블 연주로 ‘내 평생에 가는 길’과 ‘사명’을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깊은 은혜를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천국의 찬양제, 새누리교회서

오픈청지기재단, 미주 CBS-TV 공동주최, 25일 주일 5시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은 교회 성가대를 격려하고 부흥을 돕기 위한 ‘천국의 찬양제’가 열린다.

오픈뱅크 청지기재단과 CBS TV가 공동 주최하는 ‘2026 천국의 찬양제’가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 팀과 함께 새누리교회 본당에서개최된다.

총상금 및 사랑의 헌금 지급(1등 10,000달러, 2등 7,000달러, 3등 5,000달러, 그 외 모든 출연팀 각 2,000달러 수여된다.

이종용 미주 CBS-TV 대표는 “모두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찬양제 본선은 미주 CBS-TV를 통해 중계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방영될 예정이다.



“주해는 살아 있는 나무…오늘의 삶에 열매 맺어야”

뉴크리에이션 교회, 문석호 목사 '베드로 전후서 주해 및 교훈집' 출판 기념 세미나



문석호 목사 〈베드로전후서 주해 및 교훈집〉출판 기념 세미나. ©기독일보

어스킨 신학대학원, 골든 콘웰 신학대학원과 한국의 총신대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15년 여간 목회를 하다 70세가 되던 해 목회의 자리에서도 물러나 조지아 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촌락, Noah’s Landing으로 이주한 문석호 목사의 말씀을 향한 열정은 그의 나이도, 달라진 환경도 바꾸지 못했다.

은퇴 후 조지아 주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은 이후, 그가 착수한 것은 사도행전 주해 작업이었다. 1년 6개월에 걸쳐 작업을 마쳤다. 그렇게 지난 해 『사도행전 주해 및 교훈집: 그 도(道)의 사람들』 이 나왔다. 사도행전 주해를 마친 후 문 목사의 관심은 베드로전후서로 향했다.

“사도행전 주해를 마치고 베드로전후서 주해 작업을 시작했을 때, 하루 한 절씩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어떤 한 절은 일주일 동안 끌고 갈 때도 있었다.”

약 1년 반 만에 『베드로전후서 주해 및 교훈집: 흩어진 자들의 목자 베드로』를 탈고했다. 첫 원고는 1,100페이지가 넘었지만, 원고를 고치고 고쳐 851페이지로 줄여 지난 6월 책을 출한했다.

그는 이번 주해서의 출판을 하 슴으로 써 내려간 귀한 결실”이라고 표현했다.

문석호 목사는 사본 대조와 언어학적 규명의 과정을 통해 주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해 사본 및 주요 사본(Codex)들을 비교·대조하는 과정에서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해 연구 시간을 단축하고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헬라어 용어들(카리스·은혜, 엘피스·소망, 파스코·고난, 독사·영광 등)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개념적 배경을 함축하고 있다며, “단어의 어원과 시제, 역사적 배경을 세밀하게 풀어낸 ‘주해(Exegesis)’를 거쳐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해 작업을 ‘살아 있는 나무’에 비유했다. 이천년전 역사 속에 ‘박제된 베드로’를 되살리려는 작업이 아닌,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아 있는 나무를 관찰하는 게 주석 작업이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꽃이 피고, 잎이 열리고, 열매가 열려야 한다. 즉 얻는 유익이 있어야 한다. 즉 그 열매는 ‘교훈’이다. 그것을 빼놓으면 죽은 문서이다.”

이날 문 목사가 베드로전후서의 핵심 메시지로 설명한 것은 ‘흩어진 자들’(Scattered)이었다. 그는 이 책의 수신자인,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 서신들이 오늘날 크리스천들, 목회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추출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으로 흩어졌으나, 베드로는 그들에게 본향으로 다시 모이라고 촉구하기보다 각자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릴 것을 권면했다.”라며,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는 순례자가 정착민이 되려 하는 데 있다. 성공과 안정, 번영과 안락함이 신앙의 목표처럼 자리 잡은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인용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포했다. 성도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하늘 본향의 시민권을 가진 순례자이자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목사는 『베드로전후서 주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며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림자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화려한 문명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신앙인은 세상의 번영이나 물질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서 본질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오랜 기간 동역한 김연수 목사는 “오늘날의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하늘의 관점을 회복시켜 주는 귀한 영적 각성의 책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멕시코 로고스 신학교를 섬기는 김명철 선교사 등 동역자들이 함께 자리해 저서 출간을 축하했다.

현재 저자는 조지아주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 마을인 Noah’s Landing에 거주하며 로버트 E. 쿨리 신학교(Robert E. Cooley Seminary) 신학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풀러 설교 컨퍼런스 ‘설득력 있는 설교’

풀러신학대학원 코리안 센터는 오는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6 Compelling Preaching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성과주의와 소비주의, 다문화·다세대적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한국 이민교회의 설교를 성찰하고, 설득력 있는 설교의 신학과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교학 및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강사로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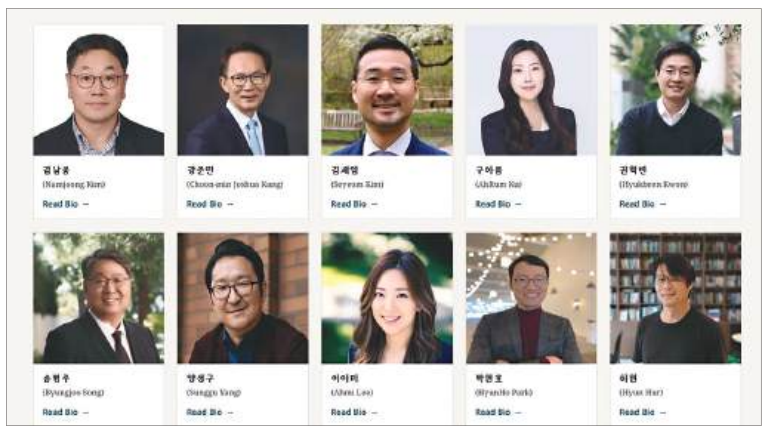
콘퍼런스는 9시 10분 ▲ 김남중 박사(클레어몬트 신학교)의 키노트 강연 ‘설교의 설득력은 어디서 오는가?’로 시작한다.

이어서 ▲ 이아미 박사(풀러 신학교)가 ‘다중방식 언어를 구사하는 설교자 형성’에 대해, ▲ 김세염 박사(게렛 신학대학원 예전-설교학 박사)가 ‘설교자의 영성 훈련’에 대해, ▲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성령 안에 거하는 설교자’에 대해 전한다.

오후 1시 30분 부터는 ▲ 박현호 박사(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Yuba City)가 ‘이민교회 환경에서의 대안적 설교 형식’에 대해, ▲ 송병주 박사(선한청지기교회)가 ‘강해 설교의 신학적, 실천적 요건’에 대해, ▲ 양성구 박사(조지폭스 대학교)가 ‘성경, 예술 그리고 설교’라는 주제로 창의적 설교에 대해 나누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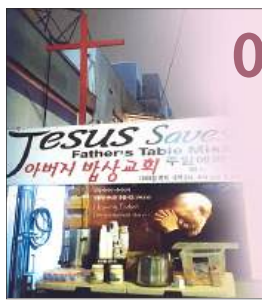
3시 20분 부터는 ▲ 구아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여성과 공적 증언’에 대해 ▲ 권혁빈 목사(시드교회)가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선교적 교회와 설교’에 대해, ▲ 허현 목사(ReconciliAsian)가 ‘평화 신학적 설교’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10월 26일 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러신학대학원 패서디나 캠퍼스 Payton 101에서 진행되며, 현장 참석과 온라인(Zoom) 참석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풀러신학교에서 열리는 ‘설득력 있는 설교’의 강사진들. ⓒ fuller.edu

컨퍼런스 웹페이지: https://fuller.edu/korean-studies-center/2026-compelling-preaching-conference/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샌디에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USA)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자격 요건
1) 교단 (PCUSA)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2)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 (M. Div)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안수 후 담임목사 및 부목사 5년 이상의 이민 목회 경험이 있는 분
4) 미국 시민자 및 영주권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신 분)
5) 한어/영어 사역 가능하신 분

2 제출 서류
1) 이력서 (최근 사진 첨부)
2) 최종 학력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자기소개 (신앙 고백, 목회 철학, 목회 계획서, 가족 소개, 가족 사진 포함)
5) 최근 설교 2 편, 15-20분 (YouTube link, MP4, or MOV for iPhone user)과 자기 소개 영상 2분 이상
6) 추천서 2 통 (목회자, 지인 등) – 추천인의 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포함

3 제출 방법
1) 제출 기간: 2026년 11월 21일까지
모든 서류를 PDF로 이메일을 받습니다
2) 이메일: SDKUPC.PNC@gmail.com
3)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분께는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4) 부임 시기: 01/01/2027

4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청빙을 위한 용도로만 쓰이며, 청빙 절차 종료 후 즉시 폐기됩니다

샌디에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 San Diego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PCUSA) | www.sdkupc.com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의료 파트너

센터메디컬그룹은 다양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건강포험 플랜들과 함께합니다

astiva HEALTH

Clever Care HEALTH PLAN

CHAMPION HEALTH PLAN

Elite Health MEDICARE ADVANTAGE

IMPERIAL HEALTH

MOLINA HEALTHCARE



* 2026년 9월 1일부터 Astiva 신규 환자 등록을 종료하였습니다. 단, 기존 Astiva 회원은 계속 센터메디컬그룹에 머무르며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신규 환자 등록에만 해당하며, Astiva와의 계약 종료가 아닙니다.

※ 헬스플랜의 혜택 및 서비스는 가입하신 헬스플랜의 종류와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되는 혜택, 보장 범위 및 이용 조건은 각 헬스플랜의 약관과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일부 혜택 및 서비스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헬스플랜의 공식 안내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888) 847-3098
월 - 금 9:00 AM - 5:00 PM

“청소년의 문제행동 너머 마음의 고통 이해해야”

사단법인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이사장 홍호수, 이하 청예본)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정신분석’이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학술문화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청소년의 정서적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장 다비드 나지오(Jean-David Nasio) 박사의 특별강연을 비롯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아들러 개인심리학 강연, 나지오 박사의 정신분석에 관한 주제강연 및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탈이나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갈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국제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예본

나지오 박사 “청소년의 침묵, 소통 의지 없다는 뜻 아냐”

특별강연을 맡은 장 다비드 나지오 박사는 ‘다루기 힘든 청소년과 어떻게 만날까? 부모와 전문가를 위한 조언’을 통해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위기 청소년을 이해하는 정신분석적 관점을 소개했다.

나지오 박사는 청소년기가 신체적·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시기라는 점을 설명했다.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거나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때 내면의 고통이 침묵이나 충동적 행동, 위험행동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통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과 고통을 스스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독과 파괴적 행동을 이해할 때 행동 자체만을 문제 삼기보다 그 행동이 반복되는 심리적 배경과 고통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는 부모와 교사, 상담자 등 청소년을 만나는 어른들이 성급한 비난이나 낙인보다 경청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청소년 자살 예방

김상인 교수(한국상담전공대학원협의회)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아들러 개인심리학-사랑과 협력, 소속감, 격려, 공동체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청소년 자살 예방의 방향을 제안했다.

청소년 자살을 우울이나 충동성 등 개인의 심리적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족 갈등, 또래 괴롭힘, 사회적 고립, 관계 단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개인과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관점에서 자살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의지가 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존재로 낙인찍기보다, 반복된 실패와 비난, 비교와 배제, 관계적 상처로 인해 삶의 용기를 잃은 존재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랑과 협력, 소속감, 격려, 공동체감을 청소년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보호 자원으로 제시했다. 또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방, 고립과 괴롭힘 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위한 선택적 예방, 자살 위험이 높거나 중증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집중적 지원을 구분해 접근하는 방안을 다뤘다.

정신분석의 이해와 현장 적용 방안 논의

김홍근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학회 이사장은 ‘J. D. Nasio의 정신분석’이라는 주제로 나지오 박사의 정신분석적 관점과 이론을 다루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학술문화 교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행동 교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과 전문적 치료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중독 예방과 자살 예방은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 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전문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청예본 “청소년 회복 위한 안전망 강화할 것”

청예본 홍호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환경의 변화, 인터넷·사이버 도박과 약물 관련 중독 위험, 과도한 학업 경쟁 및 정서적 고립 등 청소년이 마주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청소년의 마음을 돌보고 중독을 예방하는 일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강조했다.

청예본은 이번 학술문화 교류를 계기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예방교육과 상담·회복 지원, 정책적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청예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단순히 처벌하거나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행동에 담긴 고통을 이해하며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일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JMS 정명석, 재판서 징역 33년… 정조은 7년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1)이 별도로 기소된 성범죄 사건의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JMS의 이른바 ‘2인자’ 정조은(48)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약 80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 “종교적 권위 이용해 피해자 저항 어렵게 해”

재판부는 정명석이 교주로서 지닌 종교적 권위와 조직 내 위계질서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정명석이 이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적 교리를 통해 자신을 신격화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어려워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점을 지적했다.

◈정조은 징역 7년… 간부들 유죄, 신도관리자는 무죄

정조은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명석을 오랫동안 보좌해 온 점을 짚었다. 정명석이 여신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조은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준유사강간 방조와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까지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알면서도 정명석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면서도, 범행의 최종 실행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조은 등 일부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의 명령도 내렸다.

반면 함께 기소된 신도관리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방문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비서로서 수행한 단순 전달 업무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요한 기자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요,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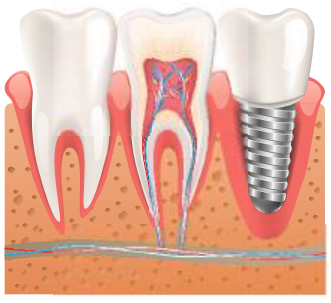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종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종, 써니김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폴 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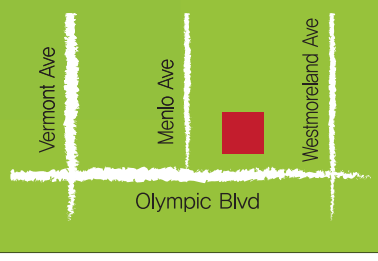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에스더 이 원장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30년 이상
한인 사회와
함께한 역사

우리 부모님께 맞는 의사,

누구일까요?



늘 **"괜찮다"**고 하시는 부모님, 하지만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괜찮겠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맞는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메디칼그룹이 함께 합니다.

5,500명의
의사·의료진

18개
대형병원 네트워크

11개
보험사 네트워크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기독교 인구 비율 반등, 예배 회복률은 코로나 이전 못 미쳐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성인 예배 참석률 94%, 교회학교 81%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 비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주일 현장예배 참석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예배 참석률은 코로나 이전의 94%, 교회학교는 81%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도·선교와 새신자 등록 등 주요 사역의 회복도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20일 발표한 주간 리포트 '넘버즈 354호'에서 지난 6월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주요 지표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 비율은 2013년 21%에서 2023년 16%까지 하락했으나, 2024년 17%, 2025년 18%로 반등했다.

반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한 현장예배 참석률은 성인 94%, 교회학교 81%로 나타났다. 기독교 인구 비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실제 교회 예배 참여는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목데연은 이러한 현상을 기독교인과 교회 출석자가 분리되는 '크리스천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으로 설명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과 교회 출석자를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기독교인 인구 비율과 실제 예배 참석률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회복률은 헌금 96%, 소그룹 80%, 전도·선교 78%로 조사됐다. 새신자 등록 회복률은 2025년 56%에서 2026년 68%로 1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다른 지표보다 낮았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대면 활동이 줄고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이용이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 비율은 2024년 32%에서 2026년 26%로 하락했지만,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이용'은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목데연은 성도들이 설교와 찬양 등 온라인 콘텐츠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하는 신앙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한 신앙 수준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자신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53%에서 2026년 41%로 1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은 27%로 유지됐으며,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서 24%로 6%포인트 상승했다. 목데연은 이를 신앙 수준을 유지하는 성도층이 줄고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교회 내 소그룹 참여도 약화했다. 교회 출석자의 소그룹 참여율은 2026년 55%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며, 정기적으로 참석한다는 비율은 2022년 42%에서 2026년 34%로 8%포인트 하락했다.

목회자들의 교회 전망에서는 교회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향후 교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담임목사는 58%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2025년 67%보다 9%포인트 낮아졌다. 출석 교인 500명 이상 교회의 목회자는 88%가 교인 수 증가를 전망한 반면, 출석 교인 29명 이하 교회에서는 53%에 그쳤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으로는 '전도 어려움'이 41%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세대 교육 문제'가 37%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 모두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반면 '재정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은 2023년 21%, 2025년 26%, 2026년 30%로 꾸준히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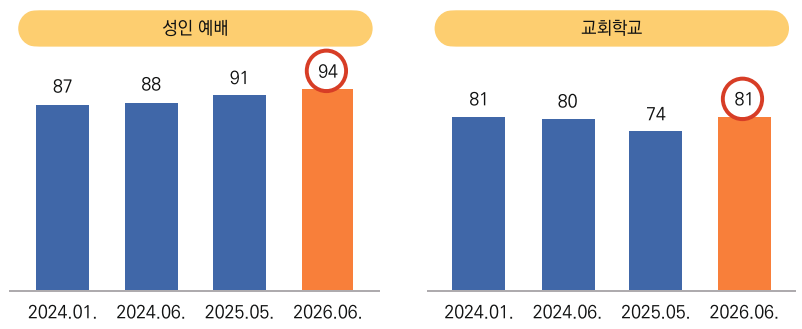
향후 목회 중점 사항으로는 '주일 현장예배 강화'가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5년 상승세를 보였던 '소그룹·성경공부'는 36%에서 29%로 7%포인트 하락했다.

김진영 기자

예배 회복률은 80~90%대, 아직 코로나 이전 회복 못해!

- 성인 예배 참석률이 2026년 6월 94%, 교회학교는 같은 기간 81% 수준이었는데, 이는 앞서 전체 기독교 인구 비율이 코로나 대비 소폭 높아진 것(2019년 17% → 2025년 18%)과는 대조적이다. 여전히 교회 안 예배 참여율은 코로나 전 대비 80~90%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 이는 과거 '기독교인=교회출석자' 등식이 이제는 '기독교인≠교회출석자' 즉, 기독교인과 교회출석자가 분리되는 현상인 크리스천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심화됨을 보여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참석률 (담임목사, 각각 N=500, 평균, %)



*'Decoupling'은 원래 서로 결합되어 있던 두 요소가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함. 경제에서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분리를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기술 분야에서는 기존에 함께 묶여 있던 기능이나 시스템이 서로 독립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됨.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교연 "'새로운 가족 유형' 언급한 대통령 인식 위험"

"동성혼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 조장하지 않을까 극히 우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이 "'새로운 유형의 가족' 언급한 대통령의 인식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정상가족'이라는 용어를 바꾸고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헌법이 정한 혼인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족 유형 즉 동성혼을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로 흐르지 않을까 극히 우려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말은 전통적 가족 관념이 강한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을 피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족제도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분법화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만약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헌법이 정한 혼인과 가족의 울타리를 허무는 정치적 시도라면 절대로 용인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부부가 출산을 망설이는 근본 원인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기껏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가족의 개념을 바꾸자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불쑥 먹는 낙태약 도입 검토를 지시해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을 마구 죽여도 좋다는 신호를 사회에 줘 사회 갈등을 촉발한 대통령이 이번에는 새로운 가족 유형을 들고 나왔다"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처방약인 양 호도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 속에 최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적 함의(含意)가 담겨 있음을 의심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 가구에 대한 가족 지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 관한 법원 판결을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연결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기류와 맞물려 대통령이 '새로운 가족 유형'을 언급한 것이 동성 동반자 관계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궁극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민법상 혼인제도 역시 남녀 간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된 틀마저 흔들려 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동성혼은 합의는커녕 따로 논의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반대가 강한 사안"이라며 "그렇더라도 최소한 논의를 시작하려면 국회가 종교시민사회와 더불어 여론 수렴에 나설 일이지 대통령이 한마디 던지고 관계부처가 곧바로 정책 추진에 나선다면, 이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했다. 한교연은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LGBTQ와 동성혼, 동성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벌어진 심각한 탈 가족 사회 갈등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헌법상 혼인·가족 허무는 시도라면 용납 못해 논의하려면 종교·시민사회 등 여론 수렴부터 신성한 혼인과 가족제도 온전히 지켜나가야

"저출생으로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가 선택할 길은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혼란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사회제도의 틀을 존중하고 신성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데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올네이션스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며 지난 24년간 성장해온 올네이션스교회 (All Nations Mission Chruch), 독립교회로서 중부 뉴저지 New Brunswick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민족 사역(Multi-ethnic ministry)과 선교적인 교회(Missional Church)에 비전이 있으신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
- 목회경력 3년 이상 있으신 분
- 이중언어와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유하신 분
-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체출 서류
- 이력서 (가족사진 포함)
- 대학교와 신학교 졸업증명서
- 목사안수 증명서
- 자기소개서 (신앙간증, 목회경험, 목회철학, 이민목회에 대한 사명, 비전 포함)
- 추천서 2부 (목회자 추천서 최소 1부 포함, 추천인이 직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설교 2회분 (동영상이나 온라인 링크)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청빙절차 종료 후 반환 없이 파기됩니다.
- 제출 마감일: **2026년 12월 25일**
- 제출 방법: 아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첨부파일은 가능한 한 PDF file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청빙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합니다.

올네이션스교회
ALL NATIONS MISSION CHURCH
www.anmcus.com
YouTube Channel: 뉴저지올네이션스교회

올네이션스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All Nations Mission Church Search Committee
100 Livingston Ave., New Brunswick, NJ 08901
ANMCapplication@gmail.com

가나 기독교계, "미션스쿨 종교적 정체성 보호" 헌법 개정 촉구



가나 감리교회는 제안된 개혁안이 선교학교의 정당한 종교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Mampong Methodist Primary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가나의 기독교계가 공공 재정을 지원받는 미션스쿨의 고유한 종교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10월 17일 보도했다.

가나 기독교협의회는 지난 5일 수도 아크라에서 경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가나 헌법개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종립학교의 설립 이념 유지와 학생 기본권 보호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 콰베나 보아포 가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이 미션스쿨의 정당한 종교적 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나의 1992년 헌법 제25조인 교육받을 권리와 제21조인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들며, 두 가지 권리가 교육 현장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 측은 입학이나 기숙사 배정, 학생회 활동 등에서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개정위원회의 권고안 취지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가 고유의 종교적 전통을 보존할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종교 기반 교육기관의 운영 주체와 그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종교계의 입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 나왔다. 집권 여당인 국민민주회의(NDC)의 존슨 아시에두 은케티아 전국 의장은 지난 3일 열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 종교 단체의 학교 운영 주도권 보장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종교 단체가 학교 설립에 투자하는 핵심 이유는 다음 세대를 신앙 교리와 규율 속에서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은케티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미션스쿨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가나의 최상위권 명문 학교 대다수가 미션스쿨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의 규율과 종교적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입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나 헌법개정위원회는 앞서 학교의 종교적 정체성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션스쿨의 교목실 운영과 종교적 상징물 유지는 허용하되, 예배 참석이나 교리 교육은 학생의 자발적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종교적 강압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기구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독교계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미션스쿨 교육의 근간이 되는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나 기독교협의회와 가톨릭 주교회의는 지난 2025년 11월 공동 성명을 내고, 교회의 역사적 교육 기여도가 학생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니엘 최 기자

스위스 5대 기독교 교파,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공동 발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스위스의 5개 주요 기독교 교파가 연합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관한 10가지 윤리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10월 15일 보도했다. 이들은 기술적 능력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교회와 사회의 인공지능 활용을 결정하는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디지털 시대의 인간성'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스위스 개신교회, 스위스 주교회의, 스위스 기독교 가톨릭교회, 자유교회 연합, 스위스 복음주의 연맹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채택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스위스 교회들의 이번 공동 지침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사회 속에서 종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신앙 공동체를 넘어 첨단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논의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타 파모스 스위스 개신교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이 학습하고 일하며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중대한 기술적 변화에 대해 스위스 교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총 10가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인간이 기계와 다르며, 인격 형성을 기술에 떠넘길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서는 모든 윤리 가이드라인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 바라보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명시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기계가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성과나 유용성이 아닌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결코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와 신학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유토피아적 환상과 종말론적 공포를 모두 배격했다. 기술적 구원 서사나 재앙 서사 모두 기술을 역사의 주도적 원동력으로 취급하고 인간을 단순한 방관자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기술 서사는 알고리즘 차별이나 권력 집중, 막대한 환경 파괴 등 현재 사회가 직면한 실제 인공지능 관련 문제들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고 문서는 비판했다.

이러한 신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은 진실과 투명성 보장,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인간 참여 보호, 생태학적 책임, 디지털 권력 집중 경계, 인공지능 발전 방향에 대한 공적 책임 등의 항목을 폭넓게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스위스 교회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규칙도 담겼다. 설교나 교육, 상담 등에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결과물의 원출처를 반드시 대조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목회적 돌봄이나 상담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계가 아닌 실무자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저장 위치나 보존 기간이 합의되지 않은 민감한 개인 정보의 입력을 차단하고, 영적 권위를 악용해 인공지능 도구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했다.

글로벌 정의와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문서는 현재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소수의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며, 정부 기관과 학교는 물론 교회마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 종속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미쉘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샘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영어권)
새벽예배: 화~토(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500-9791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박 훈 담임목사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최원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성공회, 10년 새 교인 35만 명 감소… 하락세 지속


워싱턴 국립 대성당. ⓒpixabay

미국 성공회(Episcopal Church)의 교인 감소세가 2025년에도 이어졌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공회 교인 수는 약 142만500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35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성공회가 발표한 2025년 교구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교인 수는 2023년 약 154만 7000명에서 2025년 약 142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는 약 177만 명을 기록했다. 2024년 보고서에는 전체 교인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교인 수는 수십 년간 지속된 추세에 따라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일 현장예배 참석자 수도 감소했다. 2015년 약 60만 명이었던 참석자는 2025년 약 40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는 2024년의 41만3000여 명보다도 소폭 감소한 수치다.

운영 중인 교구와 선교 공동체는 2024년 6707곳에서 2025년 6673곳으로 줄었다. 세례 건수 역시 2024년 1만9624건에서 2025년 1만9316건으로 감소했다.

미국 성공회는 미국 내 여러 주류 개신교 교단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교인 감소를 겪어왔다. 2010년에는 활동 중인 세례 교인 수가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인 감소의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이 거론되지만, 교단의 진보적인 신학적 방향이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2003년 진보적 성향의 공개적인 동성애자 주교인 진 로빈슨(Gene Robinson)이 주교로 서품되자 이에 반발한 다수의 교회와 일부 교구가 교단을 떠났다.

한편 미국 성공회는 2024년 보고서에서 전체 교인 수 집계 방식을 둘러싼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교단 공보실은 교인 수를 묻고 집계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험했으나, 교회마다 전체 교인 수를 이해하고 보고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밝혔다. 교단 지도부는 향후 보다 명확한 교인 수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집계 절차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남수단 난민 캠프 내 수단 목사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살해 위협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위치한 난민 캠프에서 수단 출신의 기독교 목사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지속적인 살해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16일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고롬 난민 정착 캠프(Gorom Refugee Resettlement camp)에서 수단 다르푸르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와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5일 밤 9시경, 이 캠프에 거주하는 드리즈 하룬 카미스 목사의 자택 주변을 약 30분간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로 외부의 누군가와 연락을 취하며 카미스 목사의 동태를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소지가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과 기독교계는 체포된 용의자가 지난 5월 카미스 목사에게 테러를 가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극단주의자들은 5월 캠프 내 교회 부지에서 카미스 목사를 기습 공격해 그의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바 있다. 피습 이전부터 지속적인 살해 협박에 시달려온 카미스 목사와 아델 이드리스 목사 등은 9월 27일 다르푸르 기독교 협의회 측에 해당 사실을 공식 보고하고 교계 차원의 지원과 기도를 요청했다. 카미스 목사는 언론을 통해 다가올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당국의 조치와 신의 섭리를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고롬 난민 캠프 내에 거주하는 다르푸르 출신 기독교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캠프 내 기독교인 대다수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현지 이슬람 사원 성직자의 영향을 받은 극단주의 세력은 기독교계의 복음 전파 활동을 정착촌 내 이슬람 신앙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적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남수단 헌법은 신앙 전파와 개종을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수단 정부 역시 지난 2020년 이슬람교 배교 행위에 대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선 난민 캠프 내부에서는 여전히 종교적 배타성과 극단주의적 관습이 팽배한 실정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난민들은 고향의 가족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물론, 개종자를 표적으로 한 이른바 명예살인이나 집단 폭력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에 고롬 난민 캠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당국에 기독교 개종자들을 위한 치안 및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종교적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이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필품 지원 등 근본적인 구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종교적 갈등과 더불어 캠프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환경도 치안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10년 분쟁을 피한 에티오피아 난민 2500여 명을 수용하기 위해 유엔(UN)의 지원으로 설립된 고롬 캠프는 지속적인 역내 분쟁으로 규모가 급증했다.

특히 2025년 1월 남수단 주바에서 발생한 반수단 폭력 사태로 6800명 이상의 수단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2025년 4월 기준 수용 인원이 2만 2000명을 초과했다. 수용 한계를 다섯 배 이상 넘어서면서 식량과 식수, 의료 서비스 부족이 만성화된 상태다.

기독교 박해 실태를 조사하는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수단은 전체 인구의 약 93%가 이슬람교도이며 기독교인은 2.3%에 불과하다.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오픈도어선교회는 '2026년 세계감시목록'에서 수단을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4위로 지목했다. 수단은 지난 2021년 13위를 기록하며 6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벗어났으나, 최근 치안 악화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부상으로 다시 박해 지수가 급상승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수단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이후 2019년 특별감시국으로 하향 조정한 뒤 2020년 12월 감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국경 밖 난민 캠프에서조차 기독교 개종자들을 향한 기독교 박해와 살해 위협이 노골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니엘 최 기자

다른 이의 삶이 나보다 커 보일 때: 부러움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의 진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스콧 솔즈의 기고글인 '시기심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되새겨야 할 네 가지 진리'(4 truths to speak when envy says you're not enough)를 10월 18일 게재했다.

스콧 솔즈는 복음 중심의 관점에서 지도자들이 품위와 목적의식, 정서적 건강을 갖추고 살아가도록 돕는 '헬시 리더스(Healthy Leaders, Inc.)'와 '시커모어 커뮤니티(The Sycamore Community)'의 설립자다. 30년 넘게 목회하며 뉴욕과 내슈빌의 주요 교회에서 사역했고, 캔자스시티와 세인트루이스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스콧 솔즈. ⓒscottsauls.com

만족스럽던 하루가 단 몇 분 만에 흔들리는 기분을 우리는 잘 안다. 다른 사람의 결혼생활과 소유, 경력과 지위, 순탄해 보이는 삶을 보는 순간 마음이 가라앉는다. '왜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을까.' 조금 전까지 만족하고 감사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이 한없이 작고 부족하게 느껴진다.

필자는 최근 출간한 책 『자비의 왕(The Mercy King)』 4장에서 시기심을 이렇게 설명했다.

"시기심은 기쁨과 만족이 언제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한다. 성취 하나, 소유 하나, 관계 하나만 더 얻으면 만족할 수 있다고 속인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졌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사라지지 않는 소속감, 우리의 성과에 좌우되지 않는 미래다."

비교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이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다. 비교는 다른 사람을 앞서면 중요성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달하면 기준은 다시 멀어진다. 기독교에 비판적이었던 버트런드 러셀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영광을 원하는 사람이 나폴레옹을 부러워하더라도 나폴레옹은 카이사르를, 카이사르는 알렉산더를, 알렉산더는 신화 속 헤라클레스를 부러워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비교의 사다리에는 언제나 자신보다 위에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 그 끝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에 이를 수도 있다.

C. S. 루이스 역시 교만의 핵심에 비교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똑똑하며 매력적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고 똑똑하며 매력적이라는 사실에서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시기심은 이러한 비교가 반대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교만이 남보다 앞선다는 데서 만족을 얻는다면, 시기심은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

둘 다 삶의 좋은 것들을 순위와 서열의 문제로 바꾼다. 비교는 커진 욕망을 만족시키기보다 계속 키운다. 그렇다면 시기심이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속삭일 때 어떤 진리로 응답할 수 있는가.

시기심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

시편 73편은 이러한 싸움을 정직하게 다룬다. 아삽은 자신이 시기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면서도,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인정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사람들을 질투했기 때문이다(시 73:1~3).

아삽은 그들의 안락함과 자신감, 고난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을 바라봤다. 그들의 번영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했다. 그 비교는 그의 믿음과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당시의 상태를 돌아보며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시 73:21~22)라고 고백한다. 전환점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갔을 때 찾아왔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시 73:16~17).

상황이 즉시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삽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시 73:25~26).

이 고백은 실망과 쇠약함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와 영혼의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발견했다는 뜻이다. 우리도 시기심을 감추거나 그 감정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신다

'분깃'이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히브리어 '헬레크'는 몫이나 할당된 부분을 뜻한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가족과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와 몫을 가리킨다.

가나안 땅이 지파들에게 분배될 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같은 방식으로 영토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민 18:20)고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의 들판과 포도원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자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몫은 다른 지파의 소유와 같은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었다.

역대상 15장 16~17절에 따르면 아삽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섬기도록 세워진 레위인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고백하는 말에는 그의 신앙과 정체성이 담겨 있다. 자신의 자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주목받는 데 달려 있지 않다는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시라면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부, 결혼생활과 영향력, 성취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줄이지 못한다.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상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가치는 경쟁의 결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속과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깊은 위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답한다. 이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으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보호하신다고 고백한다. 또한 성령께서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신다고 설명한다. 위로의 근거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에 있지 않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있다.

복음은 실망과 상실의 아픔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상황보다 오래가는 확신을 준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사랑, 다른 사람이 앞서가도 사라지지 않는 소속감,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미래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부족함을 말할 때 다음과 같이 응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실패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사랑받는다. 뒤처진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다른 사람의 성취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

다니엘 최 기자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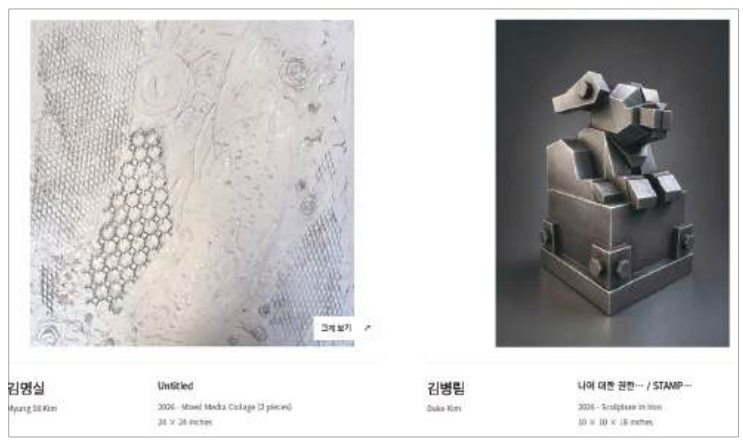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분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플렌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① 물가상승 대비 장례비용 고정
② 사망시 속한 장례 절차 진행
③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방식 설정
④ 부담없는 장례요금 할부 계획
⑤ 만성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이한주 장례 전문상담사 CA Lic.#0K41143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남가주 홍익대 동문전 'Constellation'

오프닝 리셉션 24일 2시- 5시
EK Gallery



ⓒ hongikart.org/

홍익대학교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제26회 남가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문전 'Constellation(별자리)'이 오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LA한인타운 EK Gallery(1125 Crenshaw Blvd., LA)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동문 작가 23명이 참여해 회화, 사진, 조각, 도자, 혼합매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Constellation'은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해 온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별자리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로 다른 작품 세계를 유지하면서도 예술과 동문이라는 인연으로 연결된 작가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홍익대학교의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동문 작가들의 예술 활동과 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오프닝 리셉션은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E.K. 갤러리: 1125 S. Crenshaw Blvd. LA CA 90019

CPU, 뉴먼 교수 초청 가을 사경회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PU)가 10월 27일(화) 본교 캠퍼스에서 '가을 사경회'를 연다. 특히 이번 사경회의 저녁 집회는 한인 성도들에게도 캠퍼스를 전면 개방하는 '오픈 예배'로 드려진다.

강사로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해 온 다니엘 뉴먼 목사가 나선다. 뉴먼 목사는 9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며 한인 공동체와 깊이 교류해 왔다.

사경회는 오후 2시 교내 집회(1부)와 오후 7시 지역 사회 오픈 예배(2 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사경회의 전체 주제는 '말씀을 제대로 보는가?'이다. 뉴먼 목사는 1 부와 2 부에 걸쳐 성도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 말씀 위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두 편의 설교로 풀어낼 예정이다.

테러 자금 차단... 테러 퇴치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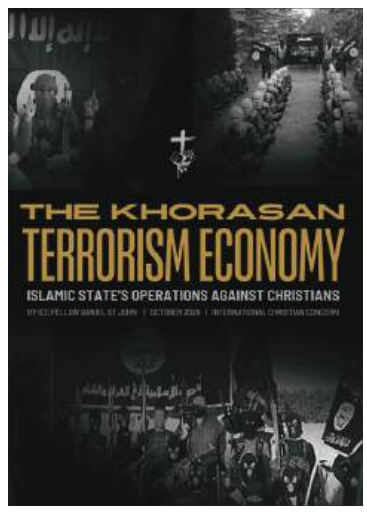
➔1면기사 〈IS자금유통〉에이어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지대에는 수십 개의 ISKP 훈련 캠프가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ISKP가 자금을 동원해 실제 기독교 시설을 공격한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산타 마리아 교회 테러 사건을 제시했다. 또한 ISKP에서 이탈한 간부의 증언을 인용해 이 조직이 튀르키예 내 여러 교회를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를 계획했으며, 가짜 신분증 제작과 무기 조달은 물론 전통적인 비공식 자금 이체 방식인 '하왈라'와 일부 은행망도 이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석가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로 IS의 기독교인 공격을 단순히 무차별 테러의 일부로 치부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IS가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IS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기독교 교리를 우상숭배로 규정한다. IS 선전 매체 '할룸무'는 성명집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우상숭배와 예수의 신성에 대한 주장이 이들과 싸워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선전했다.



다니엘 세인트 존이 집필한 테러 경제: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인 공격 작전 "The Terrorism Economy: Islamic State's Operations Against Christians"
ⓒ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둘째, IS는 서방의 대외정책과 공습을 기독교의 연장선으로 간주한다. IS의 공식 선전물인 '프라이드 오브 시드니(Pride of Sydney)' 등은 크리스마스 기간 서방과 중동 전역의 교회 및 회당을 겨냥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외로운 늑대'가 되라"고 촉구해 왔다.

보고서는 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인 신제윤의 발언을 인용해 "테러 자금 차단이 테러 퇴치의 핵심"이라며 당국이 디지털 자금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 저자인 다니엘 세인트 존 연구원은 "테러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암호화폐 추적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추적 시스템 도입, 비공식 금융망에 대한 국제 공조 단속, 행정적 자금 동결 절차 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 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김재성 칼럼

종교개혁 기념 주간 특별기고 – 로마 가톨릭에 구원이 있는가?



김 재 성 교수
전 국제신학대학원 부총장

로마 가톨릭에 구원이 있느냐는 질문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반대하며, 트렌트 공의회(1545-1563)에서 그들의 칭의 교리를 정죄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에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전 12:3).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엡 2:8).

성경은 또한 우상숭배를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롬 1:23-25). 필자는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상 공경, 성자 숭배, 기적에 대한 미신적 신앙 등이 이러한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본다. 종교적 의식이나 기적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1. 미사와 화체설의 문제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성만찬 교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비추어 비판했던 대표적인 쟁점이다. 개신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두 교회의 예배와 성찬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톨릭 미사는 희생제사와 성만찬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가톨릭은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성사적으로 재현된다고 가르치며, 성직자가 축성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체적으로 변화한다고 믿는다. 이를 화체설이라고 한다.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단번에 완성되었으며,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죄를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반복되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은 세례, 성찬, 고해성사, 견진, 성품, 혼인, 병자성사 등 일곱 가지 성사를 인정한다. 개혁주의 전통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하신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인정한다(마 28:19-20). 또한 성례 자체가 자동으로 은혜를 전달한다는 이해를 거부하고,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가르친다. 종교개혁자들이 미사와 화체설을 비판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충분한 구속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에게 참된 예배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2. 로마 가톨릭 구원론의 쟁점

개혁주의 신학은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에서 은혜주입설, 신인협력설, 선행과 공로의 역할, 이중 칭의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 핵심적인 차이는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가, 아니면 은혜와 인간의 협력 및 선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가에 있다.

1) 은혜주입설과 의의 전가

트렌트 공의회는 세례를 비롯한 성사를 통해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가 신자의 내적 갱신과 선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가르쳤다. 가톨릭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등의 덕목을 받아 성장한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신자는 은혜 안에서 의로워지며, 선행을 통해 그 의로움이 자라난다고 본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이해가 칭의와 성화를 혼합한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칭의란 죄인의 내적 의로움이 점차 증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내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이다.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인간이 율법 준수나 선행으로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을 재발견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선행을 구원의 조건이나 칭의의 근거로 보지 않았다. 선행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쳤다.

트렌트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의가 단지 전가됨으로써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종교개혁의 주장을 반대했다. 이로써 양측의 칭의 이해는 뚜렷하게 갈라졌다.

1999년 루터교 세계연맹과 로마 가톨릭교회가 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종교개혁 전통의 모든 신학적 차이가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더라도 칭의에 관한 성경 해석과 신학적 차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신인협력설과 자유의지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 함께 작용한다고 가르친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약해졌지만,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능력까지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으며, 성령의 중생시키는 은혜가 먼저 역사해야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롬 1:18-25).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주어진다.

이 쟁점은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에서도 중요한 주제였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도덕적 선택 능력을 강조했으며, 어거스틴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본성이 죄에 물들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초대교회에서 정죄되었다. 필자는 오늘날 가톨릭의 구원론에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한다는 요소가 남아 있다고 본다. 반면 개혁주의는 인간이 먼저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새롭게 하여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가르친다.

3) 선행과 공로주의

트렌트 공의회는 칭의를 죄의 용서뿐 아니라 은혜를 통한 내적 갱신과 연결했다. 가톨릭은 신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행하며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신자의 선행은 구원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선행과 칭의의 관계를 구분한다. 선행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참된 믿음에서 비롯되는 열매다. 나무가 먼저 존재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그 믿음의 결과로 거룩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며(창 15:6, 롬 4:3),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언한다(합 2:4, 롬 1:17).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칭의의 근거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며, 성화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가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낳지만, 그 변화가 칭의를 얻는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이중 칭의론에 대한 비판

개혁주의 신학은 가톨릭의 칭의 이해가 최초의 칭의와 최종적인 칭의를 구분하고, 최종적인 의롭다 하심을 신자의 삶과 선행에 연결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가톨릭은 세례로 시작된 은혜의 삶이 선행과 사랑으로 성장하며, 최종 심판에서 그 삶이 평가된다고 가르친다.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칭의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단번에 선언하시는 판결로 이해했다. 죄인은 자신의 공로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구원의 확신 역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다.

가톨릭은 칭의와 성화를 밀접하게 연결하지만, 개혁주의는 두 가지를 구별한다. 성화는 칭의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는다.

개혁주의 신학은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양자 됨,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등을 구원의 여러 은혜로 설명한다. 이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주어진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이 공로를 쌓아 완성하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다.

3. 연옥설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로마 가톨릭은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화가 필요한 영혼들이 연옥에서 일시적인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세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과 일시적인 형벌을 구분하며, 고해성사와 보속, 기도와 자선 등의 실천이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데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가톨릭의 연옥 교리는 죽음 이후에도 정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이해에 기초한다. 반면 개혁주의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믿는 자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연옥이라는 별도의 정화 장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죄의 보상과 정화

가톨릭의 연옥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은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 살아 있는 신자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교회는 기도와 미사 등의 실천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이러한 교리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하다면, 구원받은 영혼이 사후에 추가적인 형벌을 통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음을 강조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말씀하셨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죽음 이후의 상태가 임의로 바뀔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눅 16:26).

개혁주의는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믿는 자가 죽은 뒤 연옥에서 추가적인 속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충분하며, 구원은 인간의 추가적인 보상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음호에 이어서 계속]

202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제 4기

성경필사 장학생 모집



말씀을 쓰다, 믿음을 새기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쓰며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며,
가슴 깊이 새겨진 구절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35명 선발

1인당 장학금 $1,000



지난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 었습니다."

성경필사 본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본문 (한글, 영문 중 선택 가능)
응모대상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나이 만 14세~25세)
신청방법	QR 코드 스캔 후 신청
신청마감	2026년 11월 7일 (토)까지
장학생 선정발표	2026년 11월 14일 (토) 개별통보
필사노트 제공 및 교육	2026년 11월 21일(토) 오전 10:30 LA 장로교회 (한현종 담임목사)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장학금 전달식	2027년 7월 중 (장학생들에게 날짜와 장소는 추후에 알려 드림)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chdailyreporter@gmail.com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신청 QR 코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주최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주관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목동 칼럼

종교개혁 509주년, 다시 오직 성경으로!!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오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9주년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며 본격화된 종교개혁의 핵심에는 Sola Scriptura, 곧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은 실상 14세기 영국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존 위클리프(약 1328~1384)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영어 성경 번역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보헤미아의 얀 후스(약 1370~1415)도 성경에 근거하여 성직자의 부패와 성경을 벗어난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프라하의 구시가지에는 그의 동상이 광장에 서서 우리에게 '오직 성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성경'을 외치며 고난당했던 개혁의 선구자들의 피맺힌 발자취는 신학적 평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종교개혁 509년이 지난 오늘, 이 질문은 오늘의 시대에 더욱 절실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성경을 강조하면서도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판단을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 12:2)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를 살펴야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오염된 변화를 추종하기 위해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보낼 때, 오염된 변화를 추종하였던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단의 결정도, 교회의 전통도, 목회자의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뢰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조차 성경을 상고하며 확인하였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어느 교단과 목회자가 그 말씀의 권위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교회가, 교회의 권력자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와 교회의 권력자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는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의 '지키는 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지키는 것에는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는 것에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접하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마 7:24~27).** 반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을 결정하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제 종교개혁 509주년을 맞으면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필자도 너무나도 송구하여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하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저도 포기할 것을 각오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처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09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교회의 그릇된 권위 앞에 우뚝 세웠다면,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교회와 세상 앞에 당당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부단한 우리 신앙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몰하는 시대에 우리는 읽고 들은 말씀을 끝까지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불타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강태광 칼럼

미국을 영적으로 흔들었던 '정오의 기도'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19세기 중엽 미국은 경제공황과 노예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큰 소용돌이를 겪고 있었다. 미국 경제의 중심지였던 뉴욕 맨하탄도 다양한 이유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1850년대 뉴욕 맨하탄 하부 지역은 급격한 상업화로 출렁이고 있었다. 기존의 부유한 뉴욕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지를 찾아 북쪽(Uptown)으로 대거 이주했고 도시 동공화(洞空化)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맨하탄 지역 교회들은 문을 닫거나 북쪽 주거지로 이전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8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올드 노스 네덜란드 교회(화란개혁교회)도 교인이 급감하며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올드 노스 네덜란드 교회는 자리를 지키기로 했고, 대신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전도하고 교회로 유치할 '가정 방문 전문 평신도 선교사'를 세우기로 했다.

교회는 심방과 전도를 위한 평신도 선교사로 예레미야 란피어를 임명했다.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전도 방문 경험도 없었던 의류 판매상인 란피어를 발탁한 것이다. 당시 교회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교회가 그를 선택한 구체적 이유는 오랫동안 맨하탄에서 사업을 해서 도심 직장인들과 상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신앙과 성품이 좋았다.

게다가 란피어는 활력이 넘치고 끈기가 있으며 태도가 겸손하였고, 기도와 권면(Exhortation)에 은사가 있었고, 음악적 조예도 깊어 찬송 인도도 탁월했다. 특히 란피어는 독신으로 지냈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이 없었다. 그는 교회가 제시한 연봉 1,000달러 미만의 적은 사례비(당시 매우 적은 액수)를 수락하고 자기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전임 사역에 헌신했다.

1857년 7월 1일 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된 란피어는 가방에 전단지와 성경을 넣고 맨하탄 풀턴가 주변의 집, 상가, 하숙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였다. 하지만 수개월간 열심히 골목을 누비며 열심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률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란피어는 사역적 한계와 영적 무기력에 시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레미야 란피어는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바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어 기도하게 하자"는 지혜를 얻었고, 란피어는 이 틈새 기도회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이것이 위대한 '정오 기도 운동'의 시작이다. 란피어는 '1857년 9월 23일부터 수요일 정오에 화란개혁교회 3층에서 정오기도회를 시작한다'라는 전단을 만들어서 뿌렸다. 9월23일 정오, 예정된 장소에는 실망스럽게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란피어는 혼자 기도했다. 그런데 그가 혼자 기도하는 동안 5명이 찾아와 6명이 함께 기도하며 첫 모임을 마쳤다.

정오기도회 첫 모임은 미약했으나 점점 호전되었다. 다음 주에 14명, 그다음 주에 23명, 그다음 주에 100여명으로 불어나고 기도 열기도 뜨거워지자 매일 정오 기도회를 갖게 되었다. 이 기도회는 다른 도시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1858년 봄에는 뉴욕주에만 매일 5만 명 이상이 모였고 모일 수 있는 모든 장소 즉 예배당, 극장, 소방서, YMCA에서 기도회가 열렸다.

1857년에 시작한 기도부흥은 1959년까지 계속되었다. 기도회는 대도시는 물론 군소도시와 시골까지 확산하였다. 매사추세츠 주에 150개 지역, 뉴욕 200개 지역, 뉴저지 60개 지역, 펜실바니아 65개 지역, 오하이오 200개 지역, 인디아나 150개 지역, 일리노이 150개 지역, 미조리 50개 지역, 아이오와 60개 지역 등 동부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도회가 열렸다.

이 정오 기도회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돌아왔다. 유명한 부흥사나 큰 지도자가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을 흔드는 부흥운동이었다. 이 정오 기도회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 각성 운동 중 하나인 '1857년 '영적대각성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 기도할 틈을 찾아 함께 기도하기를 사모한다!



기독일보가 전하는
사랑과 위로의 시간



이윤화 콘서트
'생명의 노래'

10월 27일 – 11월 17일
「New Jersey」, 「Los Angeles」 순회

갈라지고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지침이 멈추고
새로운 사랑의 꽃이 피어나길 소망하며...





New Jersey 일정 (10/26~11/1)

11/01 (주일) 5:00pm 믿음장로교회
1209 W Front St, Lincroft, NJ 07738

Los Angeles 일정 (11/2~11/15)

11/06 (금) 7:30pm 복음장로교회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11/07 (토) 3:00pm 소스 몰(The Source)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11/08 (주일) 1:00pm 밸리주하나교회
8131 Tampa Ave, Reseda, CA 91335

11/13 (금) 6:00pm 세계등대교회 (청음 콘서트 / 예약제)
1479 E Broadway, Glendale, CA 91205

11/15 (주일) 11:30am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이윤화 찬양사역자는
현재 일본, 미국,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윤화 찬양사역자 대표곡은
「은혜」, 「내려놓음」, 「이땅은」, 「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
「いのちの歌」, 「가장 귀한 삶」, 「나는 무익한 종」 입니다

이윤화 찬양사역자의 활동 내용은
2000. MBC 강변가요제 동상
2004. MBC 시트콤 뉴 논스톱 OST 「그녀」
2006. 그룹 신화 8집 앨범 작사
2007. 대한민국 복음성가제 대상, 작곡상
2010 – 2026. 일본 전 지역 순회 콘서트
2011.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위로 콘서트
2015. FEBC 극동방송 음악 프로그램 크리스천 음악 공감 블레싱 MC
2016. CCM 정규 3집 「소망이 끝나는 날에」 발매
2018. CCM 싱글 앨범 「이땅은」 발매
2019. CCM 일본어 앨범 「いのちの歌」 발매
2020. CCM Jworship 5집 「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
2020. CBS 새롭게 하소서 출연
2021. 작곡가 손경민 미니앨범 「은혜」
2024 – 2025. 일본 노토 지역 위로 콘서트 등 입니다.

주최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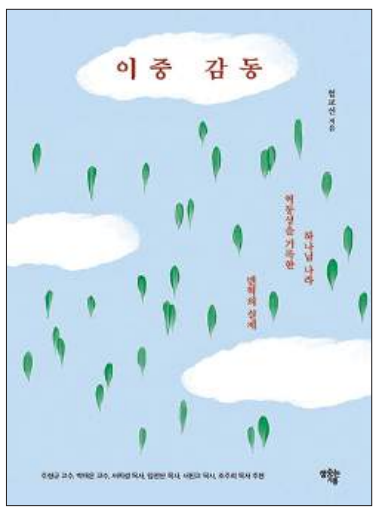
주관 ING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후원교회 믿음장로교회, 복음장로교회, 밸리주하나교회
세계등대교회, 나성영락교회

후원업체 BTS 솔라 design, 센터메디컬그룹,
Trinity MS, The Source,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 나라 역동성 기록한 변혁의 실제

지역 개발로 철거된 예배당, 임시 처소의 시간들…



이중 감동

임교신 | 샘솟는기쁨 | 256쪽

**교회를 향한
희망의 고백이며,
삶으로 살아낸
믿음의 기록이다**

**제도나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

**마을과 이웃 곁에 머물며,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관계 공동체로
서의 교회를 전한다**

**삶에서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며,
변화와 변혁, 서로 돌봄,
예배와 공동체,
나눔과 섬김 등
구체적인 현장의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임교신 목사의 『이중 감동』은 단순한 목회 에세이나 개인적 회고록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삶의 현장에서 성취해 가는 한 목회자의 고백록에 가깝다.

저자는 자신의 목회 여정 속에서 마주한 고난과 변화, 특히 코로나와 지역 개발로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예배당 철거와 임시 처소의 시간들을 솔직하면서도 영적 깊이로 풀어낸다. 책 제목이 말하듯, 이 기록은 목회자 개인이 감동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감동을 다시 공동체가 나누게 하는 '이중의 감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감동의 시선은 저자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며, 책 전반에 걸쳐 펼쳐지는 신학적 성찰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한다.

임시 예배처소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저자의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성막 시대 광야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따라 이동하던 삶은, 안정된 장소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중심에 둔 삶이었다.

임교신 목사는 바로 이 지점을 목회 현장에서 새롭게 체험한다. 코로나로 예배 방식이 흔들리고, 개발 문제로 예배당이 철거되며, 공동체가 마치 광야의 백성처럼 정처없이 이동해야 했던 시간 속에서 그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이때 교회는 건물의 유무나 고정된 공간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을 따라 존재하고 움직일 때 그곳이 곧 교회라는 본질적 인식이 강화된다. 책은 이러한 깨달음을 목회적 사건 나열이 아니라 신학적 사유를 담은 이야기로 풀어내, 독자가 자연스럽게 교회론의 근본 주제를 생각하도록 이끈다.

특히 저자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거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고 드러내는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임하고 확장되기 위해 시작되는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점에서, 목회 현장에서 겪는 모든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

예배당이 무너지고 흩어져야 하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다시 모이고, 임시 처소에서도 변함없이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일은 건물의 안정성보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성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저자가 경험을 통해 체득한 이 신학적 인식은 독자에게도 강한 울림을 준다. 동시에 『이중 감동』은 목회 현실을 숨김없이 드러낸 기록이기도 하다. 목회자는 종종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붙들고 있는 동시에, 교회 행정·건축 문제, 재정 문제, 공동체 내부 긴장, 팬데믹이라는 외적 위기 등을 몸으로 감당해야 한다.

책은 이러한 현실을 과장 없이 담담하게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품고 임하듯, 목회 역시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저자는 목회의 어려움을 신학적 체념으로 포장하지 않고, 그 무게를 있는 그대로 견디면서도 끝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끄신다는 소망을 놓지 않는다. 이 긴장과 소망의 흐름은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신학이 단지 학문적 체계가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원리임을 느끼게 한다.

'임시 처소'의 경험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공간적 문제의 서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성장 과정으로 풀어간다. 광야의 시간은 항상 괴로움과 동시에 훈련을 의미한다. 저자는 임시 처소에서 경험한 불안, 공동체 구성원들의 걱정,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건축 과정 속에서 드러난 인내를 영적 훈련의 시선으로 해석한다. 이는 교회를 조직이나 제도로 보는 세속적 관점과 달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듬으시는 영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교회론적 접근이다. 이러한 시선이 책 전반에 부드럽게 흐르며 독자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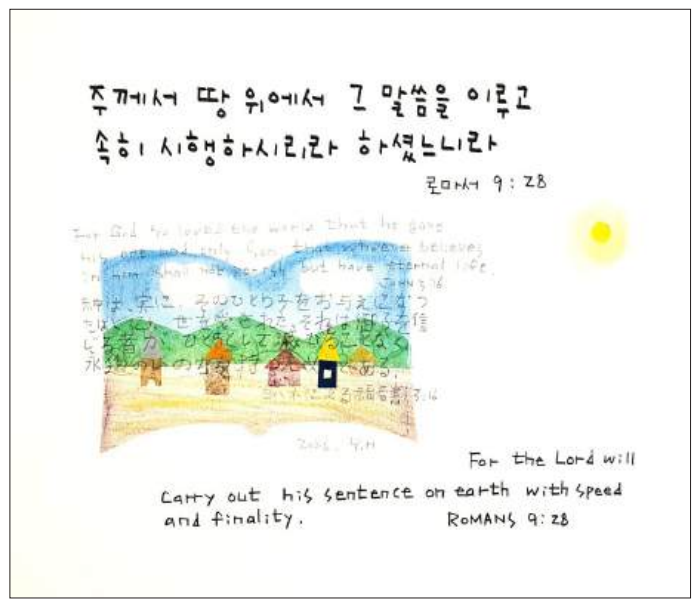
▲'교회가 철거돼 잔해만 어지럽게 남은 상태에 상심한 목사'에 생성한 이미지. ⓒ챗G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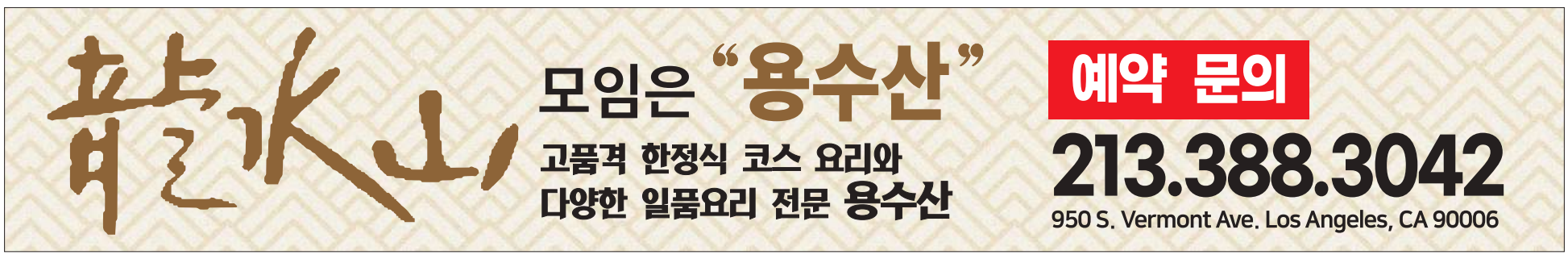
『이중 감동』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많은 목회 서적들이 목회자의 노하우, 프로그램, 혹은 성공담을 중심에 두는 반면,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본 교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목회 경험을 재해석한다. 이는 단순히 경험의 나열이 아니라, 목회란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통찰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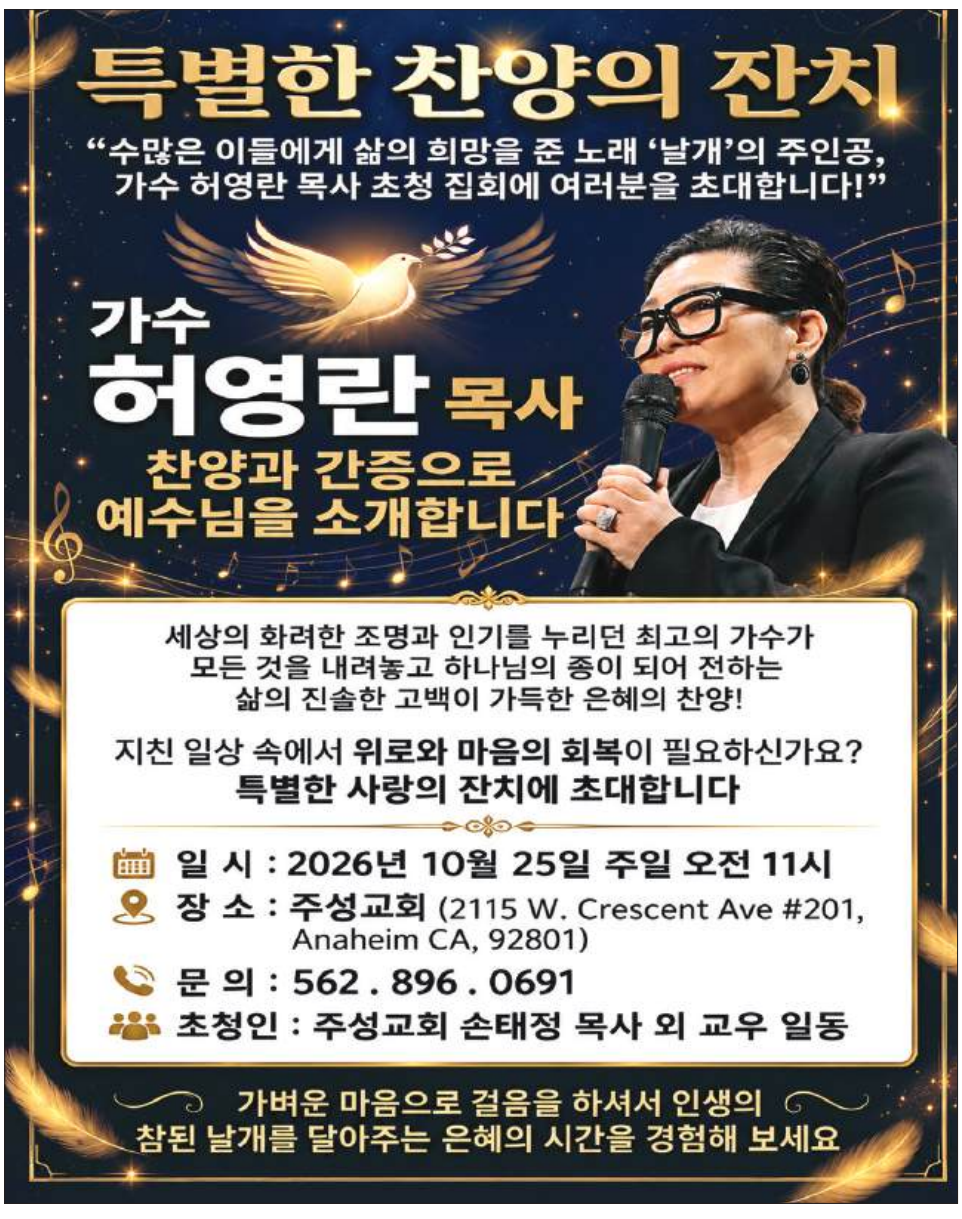
목회는 교회를 유지하는 기술이나 공동체를 운영하는 능력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교회에서 구현해내기 위한 신실한 순종이라는 저자의 시각이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관점은 독자에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목회자가 어떤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사역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또한 저자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교회란 결국 하나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이다. 예배당이 철거되고 장소가 바뀌는 상황은 공동체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순간 공동체의 참된 정체성이 드러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사랑의 표징

17세기 네덜란드 풍경화 꽃피운 원동력 '칼뱅주의'

칼뱅주의, 성속 엄격한 이분법 해체
자연계, 하나님 은혜 투영 계시 장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 손길 체감
하나님 영광 선포 신성한 표징들로



▲야곱 판 루이스달의 〈나덴의 풍경〉, 캔버스에 유채, 1647, 마드리드의 티센 보르네미사미술관.

예성경은 자연을 하나님의 계시로 표현한다. 자연은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지혜가 들어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라고 고백하며, 하늘의 광채와 온갖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읽어낸다.

장 칼뱅(John Calvin)의 미학적 지평에서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인간 감각에 유쾌함을 제공하는 수동적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미학자 레옹 벵셀리우스(Leon Wencelius, 1900-1972)가 분석하였듯,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사물 내면에 아로새겨진 신성의 인장이자,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役事)에 대한 가시적 증언이다.

칼뱅이 제시하는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크게 명료함(clarte), 질서(ordre), 그리고 완전성(perfection)이라는 세 가지 객관적 구성요소로 체계화된다(Leon Wencelius, L'Esthetique de Calvin, Latkine Reprints, 1979, 46쪽).

첫째, '명료함'은 피조 세계 전반을 조명하는 신성한 찬란함의 반영이다. 빛나는 천상계의 조화부터 인간의 도덕적·영적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투영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둘째, '질서'는 피조 세계를 형상화하고 조율하는 핵심 틀이다. 천체 역학이나 인체 구조가 증언하듯, 미학적 질서는 단조로운 통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복합적 결합'이다. 하나님은 각 요소에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시고 전체를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영원한 신적 뜻을 우주 속에 실현하신다.

셋째, '완전성'은 미의 개념을 완성한다. 창조의 걸작인 인간이 앞뒤 어느 쪽에서 보아도 아름답듯, 신적 완전성은 결함 없이 유지된다. 특히 이 완전성은 생존의 엄밀한 필요성을 초월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하나님은 단순한 양식 외에도 인간에게 기쁨을 선사하고자 아름다운 꽃과 색채, 향기를 선행하게 하셨다.

이러한 칼뱅 미학의 유산은 훗날 17세기 북유럽 회화에서 나타난 일상과 풍경, 정물과 노동에 대한 미학적 긍정의 신학적 토대가 됐다.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것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창조주의 위대함과 은혜를 찬양하게 만드는 신앙적 행위이다. 벵셀리우스가 파악한 칼뱅의 미학은 피조 세계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읽어내도록 돕는다.

16세기와 17세기 칼빈주의자들은 성경 외에 자연, 즉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두 번째 책(second book)'으로 여겼다. 자연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은총을 계시한다고 여긴 것이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요리문답(제2장)은 세상이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책과 같으며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안에서 문자와 같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 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게 한다고 가르쳤다.

칼뱅 자신도 제네바판 『기독교강요(1545)』에서 '순수하게 즐거움을 주는' 주제들, 가령 '동물들과 마을과 전원'과 같은 풍경을 묘사하는 것을 이미 명시한 바 있다. 세계를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극장'으로 표현하는 등, 시각적 세계를 긍정하는 칼뱅의 가르침은 네덜란드 화가들에게 풍경화를 중요한 회화적 주제로 다룰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다.

네덜란드 화가들에게 자연은 하나님의 은총의 부분이자, 그분의 전능성·무한성을 알려주는 색인과 같았다. 네덜란드 화파의 그림에 담긴 꽃과 폭포, 무지개와 광활한 하늘, 숲과 물결 등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말하자면 화가들은 창조주의 주권이 교회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한 셈이다. 이를 통해 화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종교'에만 한정하지 않고,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처럼 풍경화 속에 담긴 깊은 신학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풍경화는 오랫동안 두 가지 상반된 오해를 받아왔다. 하나는 그것을 단순히 화가의 개인적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로 치부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신학적 지향 없이 자연의 외형만을 액면 그대로 사생한 세속적 사실주의로 격하시키는 시선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미술사학자 마르틴 드 클레인(Maarten de Klijn)이 명쾌하게 반박했듯,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에서 독창적인 풍경화 양식을 태동시킨 진짜 동력은 세속화된 미학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유산인 칼뱅주의(Calvinism)였다.

칼뱅주의는 성(聖)과 속(俗)의 엄격한 이분법을 해체하고, 자연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신성이 가시적으로 투영된 계시의 장으로 재발견하도록 이끌었다. 자연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시정(視正)은 신자들로 하여금 수도원이나 성당의 내밀한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창조주가 지으신 피조 세계 한가운데로 귀환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감하게 만들었다.

네덜란드 화가들이 캔버스에 담아낸 숲과 전원, 강과 구름, 농부와 풍차는 단순한 지형 기록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무대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신성한 표징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관은 마이클 리브스(Michael Reeves)가 파악한 창조론을 만나, 한층 깊은 의미를 얻는다. 리브스는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의 원천을 '본성적으로 충만하시고 흘러넘치시고 아낌없이 나누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성품에서 찾았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핍되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성자·성령 삼위 간에 누리시던 충만한 사랑을 외부로 퍼뜨리고 발산하며 폭발시키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Michael Reeves, The Good God, 장호준 역, 『선하신 하나님』, 복있는 사람, 2015, 88쪽). 이때 창조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피조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흘러넘친 '사랑의 넘침(overflow)' 사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네덜란드 풍경화는 자연에 대한 단순 묘사를 넘어선다. 캔버스 위에 펼쳐진 햇살과 대지, 나무와 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쏟아부으신 '넘쳐나는 사랑의 인장들'이다. 언약의 계승자를 자처했던 네덜란드 화가들은 붓끝을 통해 그 넘치는 은혜의 장면들을 포착하여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로 가득 차 있음을 형용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볼 때, 네덜란드 풍경화가 전하는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다. 피조 세계는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적 공간이 아니며, 눈의 만족만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외부로 폭발해 만들어진 은혜의 무대이자 계시의 공간이다. 이를 대하는 인간의 감정을 벵셀리우스는 '경탄(admiration)'으로 규정했으며, 신묘한 아름다움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이 임재의 지속을 갈망한다.

현대인들은 암시를 통해 작동하는 광고 코드를 해독하는 데는 능숙해도, 풍경이 문자 그대로의 이미지 이상일 수 있다는 제안에는 어색해한다. 그러나 17세기 예술가들은 사물에서 깊은 의미를 읽어내는 데 탁월했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필립스 코닝크, 길가의 농가가 있는 파노라마, 캔버스에 유채, 133x167.5cm, 1655, 레익스 뮤지엄 소장.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차기 담임목사 청빙 공고

(1년간 Co-Pastor/동사목사로 사역 후 담임목사로 취임)



선한목자교회는 LA 동부지역인 Chino Hills, California에 위치한 51년 역사의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복음언약장로교) 소속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라는 비전을 품고 성장해 온 보수적 복음주의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맞아,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에 맡기신 사명과 핵심가치를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차기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청빙되신 목회자는 1년간 동사목사(Co-Pastor)로 현 담임목사와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의 목회 방향과 사역을 공유하고 동역하게 됩니다. 이후 교회의 목회와 사역을 이어받아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1. 자격 요건
- 이민교회 목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주의적 신학적 정체성을 가진 장로교 목사
- 미국 내 정규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이수하신 분
- 미주 지역에서 5년 이상의 Full-time 목회 경험이 있는 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경력)
- 본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동의하고 함께 이루어가실 분
- 목회적 덕망과 건강한 영적 리더십을 갖추신 분
- 미국 체류 및 사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ECO(복음언약장로교) 소속 목사 또는 ECO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이중언어 목회 및 사역이 가능한 분

2. 제출 서류
- 이력서(최근 본인 및 가족 사진 첨부)
- 목회자 자기소개서 및 목회철학
- 최근 설교 영상 2편 (YouTube 또는 Vimeo 링크)
- 신학대학원 학위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 사본
-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청빙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3. 제출 방법
- 제출 마감: 2026년 12월 31일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resume@sunhanchurch.com (선한목자교회 청빙위원회 이메일)

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심사 후 면접 및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청빙위원회 | 위원장 정의태 장로 | www.sunhanchurch.com

남가주 한인교회, 할렐루야 나잇, 홀리윈, 폴 페스티발 개최

남가주 한인교회들이 오는 10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할렐루야 나잇(Hallelujah Night)', '홀리윈(Holy Win)', '홀리윈 페스티벌', '패밀리 폴 페스트(Family Fall Fest)' 등 교회별로 이름과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며 기독교 신앙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YNC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는 할렐루야 나잇을 10월 31일(토) 오후 5시 비전홀에서 "Fall Festival'이란 주제로 개최한다.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는 '갈멜산의 승리'를 주제로 할렐루야 나이트를 개최한다. 행사는 10월 31일 오후 5시 본당과 친교실, 아가페 홀에서 진행된다. 교회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행사를 준비한다.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목사)는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할렐루야 나잇을 연다.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부모이며, 등록은 교회 교육부 웹사이트(www.tkcedu.com)에서 할 수 있다. 동양선교교회(김지훈 목사)는 10월 31일(토) 오후 5시 30분 본당 앞 주차장에서 'Trunk 0r Treat'을 진행한다. 게임과 사탕이 제공된다.



LA사랑의교회 할렐루야 나잇. ⓒLA사랑의교회

베델교회(김한요 목사)도 10월 31일 오후 4시 30분부터 가족을 위한 '패밀리 폴 페스트(Family Fall Fest)'를 진행한다.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는 10월 31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NLVC 드림랜드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홀리윈(Holy Win)' 행사를 연다. 레이저 태그, 놀이기구, 기차, 카니발 게임을 비롯해 솜사탕, 핫도그, 음료,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스튬을 입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의는 심진이 전도사(818-913-7888), 석희정 목사(323-828-1191)에게 하면 된다.

세리토스선교교회(방상용 목사)는 10월 31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할렐루야 나잇을 개최한다.

얼바인온누리교회(박신웅 목사)는 31일 오후 4시-7시까지 교회 주차장 및 본당에서 홀리윈을 개최한다. 3세-6학년 아이들과 부모님 [영아부 (1~2세) 아이들도 함께 할수 있다. 문의 (Contact): John Yoon 전도사 (408)706-8957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10월 31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은혜광장에서 할렐루야 나이트를 진행한다. 대상은 영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다.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는 10월 31일(토) 오후 5시 본당과 테니스 코트에서 'Faith Alone'이란 주제로 Fall Festival을 연다.

토렌스 조은교회(가명훈 목사)는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본당과 주차장에서 '홀리윈 페스티벌'을 연다. 토렌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는 하루 앞선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하베스트 페스티벌(Harvest Festival)'을 개최한다. 예배는 유·초등부 채플에서 드리며, 행사는 영·유아부 채플과 교육관 앞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영·유아부와 유·초등부 자녀들이다.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는 10월 31일(토)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그래이스 채플과 교육관에서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를 대상으로 "Just Like Jesus: Arise and Shine'이란 주제로 할렐루야 나잇을 진행한다. 행사는 1부 저녁 식사, 2부 신나는 예배, 3부 블랙라잇 특별활동/게임으로 구성된다.

교회들은 할로윈 시즌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대안 행사를 마련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와 신앙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다.

주디 한 기자

NKDB "탈북여성 인신매매 피해, 인정 넘어 실질적 보호 필요"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피해가 북한 탈출과 중국 체류, 강제송환 위험, 한국 정착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도적 보호 공백으로 지속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전문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보고서 『경계를 넘는 여성들: 북·중 탈북여성의 생존과 선택』에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한 탈북여성 30명의 심층면접과 통합인권DB에 기록된 관련 사건 4544건을 분석했다.

북한·중국·한국의 법률과 정책, 국제규범도 함께 검토했다. 발생 시기가 확인된 기록 4064건 가운데 2000년대 사건은 2229건으로 54.8%를 차지했다. 1990년대는 1207건(29.7%), 2010년대는 620건(15.3%)이었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DB에 기록된 사건의 시기별 분포이며, 실제 인신매매 전체 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분석에는 국제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인 팔레르모 의정서의 '행위·수단·목적'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매매혼과 예속적 혼인이 착취로 성립하는 조건을 살피며, 혼인이라는 외형 아래 여러 피해가 중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계를 넘는 여성들: 북 · 중 탈북여성의 생존과 선택〉 ⓒNKDB

혼인 유지한다고 자발적 선택으로 볼 수 없어

심층면접과 중국 법원 판결 사례에서는 매매혼을 목적으로 거래된 여성이 성폭력과 강제적인 가사·농업 노동, 재생산 착취를 경험한 양상이 확인됐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감시하고, 재판매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분석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성의 선택이 자발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금과 강제송환, 보복, 지원 상실, 자녀와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를 떠나려는 선택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와의 관계나 정서적·경제적 유대 때문에 해당 가정에 남기를 원하는 여성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결정하고, 이후 선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최초의 피해 인정이나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취약성이 북한과 중국의 제도적 환경에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합법적인 출국 경로가 제한돼 브로커가 통제하는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게 되고, 중국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취업과 의료 등 기본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가해자가 탈출과 신고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간극

보고서는 중국에서 탈북여성이 주로 '불법 경제이주민'으로 취급되면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와 난민 보호 필요성, 강제송환 금지 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체류 신분 문제는 혼인과 자녀 등록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법원이 인신매매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체류와 지원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피해자 보호가 분리돼 있으며,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이 그 간극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체계와 인신매매 피해 지원 체계의 연계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정착 지원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겪은 피해가 별도로 식별되지 않으면 의료·심리사회적·법률·가족관계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 여부를 한 차례 면담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복지, 수사·출입국, 초기 보호와 정착 지원 등 여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사 협조 여부와 관계없는 보호·지원,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피해자 정보의 비밀보장과 예방교육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 정착 지원에 피해 식별 절차 도입 제안

국가별로는 북한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범죄 규정을 마련하고, 허가 없는 국경 출입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에는 체포·송환 절차와 분리된 피해자 식별·지원 경로를 마련하고,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체류 정보가 단속이나 송환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에는 통일부와 하나원, 지역적응센터 등 정착 지원 기관에 인신매매 피해 식별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피해 지원과 정착 지원을 연결해 당사자의 필요에 맞는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인정이 가해자 처벌의 근거에 그쳐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중국·한국을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귀환, 구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니엘 최 기자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소셜 받으면서 일하면 소셜 깎이니, 모든 걸 포기해야겠어요."

여러분, 소셜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소셜연금이 줄어들까 봐 일을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일을 하면 소셜연금이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먼저 이 소셜연금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은 출생연도와 미국 사회보장국이 정해 놓은 정년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미국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정년퇴직 연령은 출생연도가 1958년생이시면 정년퇴직 연령은 66세 8개월, 1959년생이시면 66세 10개월, 1960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의 정년퇴직 연령은 67세입니다.

그럼 만약 선생님들 중에 내 나이가 67세가 아직 안 됐다 하시면, 이제 이 소셜연금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는데 바로 **24,480달러!** 입니다. 아직 67세 미만이다 싶으신 분들은 아직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4,480달러를 넘으면 소셜연금의 일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24,480달러를 한 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2,040달러인데요, 여기서 한 달에 인컴이 2,040달러가 넘게 되면 그 초과한 금액의 2달러당, 받아야 할 소셜연금 1달러씩이 유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세인 김 선생님이 매달 2,00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본인의 사업체에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과거 경력을 살려서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아주 잘된 경우이죠.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026년에 4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이 경우 인컴 제한인 24,480달러에서 15,520달러를 더 벌게 된 거죠. 다시 말해 초과된 인컴이 15,520달러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초과 인컴 15,520이 소셜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한 금액 2달러당, 소셜연금은 1달러를 유보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초과 인컴 15,520을 2로 나눠서 7,760달러가 나오면 이제 이 금액이 소셜연금 24,000달러 중에 유보가 되어 1년 동안 받는 소셜연금은 계산상 $16,240달러가 됩니다. 소셜연금 인컴이 매달 $2,000달러에서 줄어서 $1,353.33만 받게 되는 거지요.

65세 김 선생님 사례 (2026년)

항목	금액
월 소셜연금 (원래)	$2,000
연간 근로소득	$40,000
2026년 소득 제한	$24,480
초과 소득	$15,520
유보되는 소셜연금 ($15,520 ÷ 2)	$7,760
연간 원래 소셜연금	$24,000
연간 실제 지급액	**$16,240**
계산상 월평균 지급액	**$1,353.33**

그리고 2026년 올해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시는 67세가 되신 분들, 즉 1959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적용이 다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959년 12월에 태어나셨다 하면 정년퇴직 연령은 66세 10개월로 적용이 되고 이 시기에 도달하는 시점이 2026년 10월이 되겠죠. 이때는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인컴 제한이 $65,160로 적용되고 2026년 10월부터는 근로소득 인컴의 제한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1959년 12월생인 최 선생님이 매월 $2,000불 소셜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2026년 1월에서 9월까지 전체 근로소득이 $80,000불이었다 하면 특별 소득 제한 $65,160불에서 $14,840불을 초과하게 됐죠? 이 초과 금액 3달러당 소셜연금 1달러씩을 유보, $14,840을 3으로 나눈 $4,946.67가 유보가 됩니다.

1959년 12월생 최 선생님 사례 (2026년)

항목	금액
월 소셜연금 (원래)	$2,000
2026년 1월~9월 근로소득	$80,000
2026년 특별 소득 제한	$65,160
초과 소득	$14,840
유보되는 소셜연금 ($14,840 ÷ 3)	$4,946.67
연간 원래 소셜연금	$24,000
연간 계산상 실제 지급액	**$19,053.33**
2026년 10월부터 소득 제한	**없음**

그러면 다음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유보된 금액은 매달 소셜연금에서 깎이는 것인가와 둘째, 언제 다시 받을 수는 있을까 말이죠.

첫째 질문, 유보되는 금액은 매달 소셜연금에서 깎기보다는 아예 한 번에 계산해서 소셜연금을 몇 개월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우리 김 선생님이나 최 선생님이 신청을 해서 어떤 시기에 그 금액을 줄이거나 받을 건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깎여서 받지 못한 소셜연금은 이후에 사회보장국의 정년퇴직 연령이 되면 그때 재계산해서 지급액을 돌려 나눠 줌으로써 소셜연금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67세 정년퇴직 연세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인컴이 높다고 해도 소셜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셜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일을 무조건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살인지,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로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문제와 소셜연금에 소득세 인컴 택스가 붙는 문제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도 기억해야 하는데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만들어 드리는 데 최고 실력을 갖춘 재정 전문가가 바로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저와 저희 매니저님들과 에이전트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였습니다. ▣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7825 Engineer Rd., Suite 201, San Diego, CA 92111

오렌지한인교회
ORANGE KOREAN CHURCH

창립 50주년

감사축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안에 지나온 50년.
그 깊은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1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

11월 1일 (주일) 4pm

연합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드는 감동의 자리입니다.

02

창립 50주년 **부흥회**

11월 6일 (금) ~ 8일 (주일)

금요일 7pm | 토요일 6am, 6pm
주일 1, 2, 3부 예배



강사: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선교교회, 본교회 4대 담임)

03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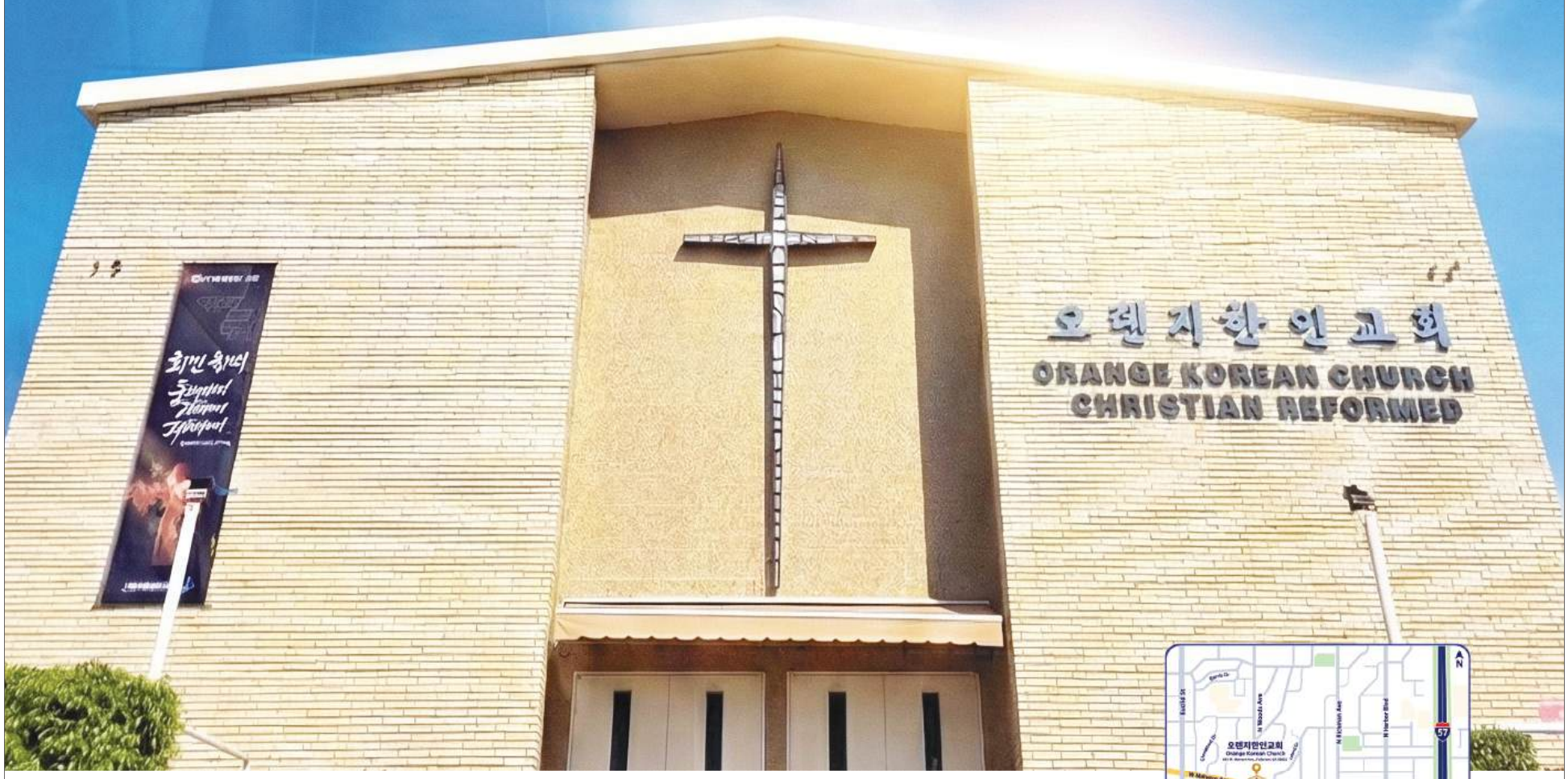
11월 8일 (주일) 2pm

- 신임 직분자 임직식
  (명예장로 **이종순**, 권사 **전월임**, **최유선**)
- **정유성** 담임목사 위임식
- 전교인 성경필사 봉헌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ORANGE KOREAN CHURCH

714-871-8320
www.okcrc.org
643 W. Malvern Ave., Fullerton, CA 92832